

팀프로젝트 회의록

톡톡팀 (Team 7) : 응우옌밍투이, 라잉티응웬웬, 짠티반티, 팜티옥지엠, 부티미후엔

팀리더 : 응우옌밍투이

발표 주제 : 죽음과 사후 세계 종교적 관점

1. 1 차 회의

- 회의 일시: 2025년 10월 10일 (22:00~23:00)
- 참석자: 응우옌밍투이, 라잉티응웬웬, 짠티반티, 팜티옥지엠, 부티미후엔
- 회의 방식: 온라인
- 회의 내용: 발표 주제 재결정 및 자료 조사 역할 분담

2. 자료 1 차 제출 마감일: 10월 15일

낮은 제출: 라잉티응웬웬

3. 조장 수정 일정: 10월 17일 – 조장이 전체 발표 내용과 발표 대본을 완성함

4. 2 차 회의

- 회의 일시: 2025년 10월 17일
- 참석자: 응우옌밍투이, 라잉티응웬웬, 짠티반티, 팜티옥지엠, 부티미후엔
- 회의 방식: 수업 끝나후에
- 회의 내용: 발표 내용 보완, 발표 대본 구성, 역할 분담 및 PPT 제작 진행
- 발표 담당자: 응우옌밍투이, 라잉티응웬웬, 짠티반티, 팜티옥지엠, 부티미후엔
- PPT 제작 담당자: 응우옌밍투이

5. PPT 제작 진행

- 담당자: 응우옌밍투이
- 완료일: 2025년 10월 20일

발표문 요약

1. 주제 소개: (지엔)

- 이번 발표의 주제는 “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 관점”이다.
- 죽음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문제이며, 여러 종교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다.
- 죽음의 정의: 생명체의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멈추는 상태로, 생명의 끝을 의미.
- 사후 세계의 정의: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존재하며, 육체를 벗어난 정신적인 형태로 계속된다고 믿는 세계이다.

2. 종교적 관점(후엔)

- 불교: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윤회의 과정이며,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(해탈)이다
- 기독교: 죽음 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,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.
- 힌두교: 영혼은 업(karma)에 따라 다시 태어나며, 모크샤(해탈)를 목표로 한다.
- 이슬람교: 죽음 후 심판의 날에 알라의 판단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.

3. 과학적 관점:(반티)

- 과학적으로 죽음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해된다.
- 심장이 멎추고 뇌 활동이 중단되면 생명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다.
- 임사체험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뇌의 생리적 반응으로 설명된다.
- 심리학적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남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.

4. 문화적·사회적 관점: (웬웬)

종교마다 장례 방식이 다르며, 현대에는 친환경 장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. 장례와 추모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치유의 의미를 가진다.

- 불교에서는 죽음을 ‘무상(無常)’으로 보며, 사람이 죽으면 49 일 동안 명복을 비는 의식을 한다.
-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부활을 기다린다고 믿으며, 장례 예배와 추모 기도를 통해 고인을 위로한다.

- 힌두교에서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 새 생으로 이동한다고 보며, 주로 화장을 한다.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24 시간 이내에 시신을 씻기고 기도 후 매장을 한다.

5. 결론: (투이)

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,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다.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. .